

# 도난~재해까지 성보문화재 관리 '허술'

## 국회 문방위,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정부 정책 질타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재 정책의 허술함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도난 문화재 현황, 재해 관리 등 문화재 정책 전반이 문제가 됐다.

이재영(새누리당)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문화재 불법유통 등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45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5명에서 2009년 90명, 2010년 102명, 2011년 128명에 이어 올해는 7월 말 현재 74명이 검거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적발된 사범이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불법 유통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3년 226점에 불과했던 불법 유통이 올해는 7월말 현재 4,634점으로 최근 10년 사이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재의 보안을 위해 설치한 무인경비시스템인 폐쇄회로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이마저도 하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점검결과 CCTV 126대 중 25대(19.8%)가 2010년에는 141대 중 30대(21.3%)가 고장을 일으켜 수리를 했지만,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재영 의원은 "문화재는 한번 반출되면 회수하기가 힘든 만큼 불법유

### 문화재사범 3년간 2배 증가

### CCTV 5대 중 1대 '고장'

### 풍수해 복구 비용 26억 원

### 사전 점검 필요성 확대

통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훔쳐 불법으로 유통시킨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문화재 영문 안내판 조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의 경우 'National Treasure(국보)'라고 표기해야 하지만 'Natural Monument(천연기념물)'로 표기하는 등 다수의 문화재의 영



이재영 의원

주호영 의원



남경필 의원

김장실 의원

문 안내판의 오류가 나타났다.

국보 제6호 중원 탑평리 7층 석탑의 경우 '신라탑 중 유일한 7층 석탑'을 'typical of the Silla stone pagoda art(전형적인 신라 석탑)'으로 번역됐다.

이 같은 오류들에 대해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런 실수들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국보 안내판이라도 전수조사를 하여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풍수해 피해에 대한 문화재 보존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경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8건에 불과했던 풍수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2009년 27건, 2010년 73건, 2011년 92건, 2012년 현재 113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국보 제24호인 석굴암 석굴은 진입로 사면 유실, 입구 석축 유실되고 보물 924호인 구례 천은사 극락전 등의 기와가 유실, 파손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25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화재청은 보다 신속히 복구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문화재 사전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장실(새누리당)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향후 20년 뒤에는 태풍의 발생 빈도가 11% 늘어나고, 강도도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풍수해 위기 대응 매뉴얼에 사전 점검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갖춰 사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범 불자 교정인 이유수, 김행규 교도관

### 조계종 포교원 5일 시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5일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올해의 교정기관 모범 불자교도관에 이유수 원주교도소 교도관과 김행규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선정, 시상했다.

이유수 교도관은 원주교도소 사회복지과 불교담당 교사로 불교신자들을 발굴해 불자간 화합을 도모하고 불교신앙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에 매진, 전범포교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김행규 교도관은 서울구치소 교정교화 불교분과 교위로, 구치소내 직원불자회인 불신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형수 교정교화에 힘쓰는 한편 불우 수용자 영치금을 지원하고 경비교도대 구도회 사회봉사활동을 이끄는 등 불심에 기반한 다양한 실천행위를 펼치고 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야말로 수행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이자 포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모범 불자교도관에 이유수, 김행규 교도관을 선정하고 5일 시상했다.

## 대한불교청년회 새 회장 선출한다

### 오는 21일 대의원총회서... 전준호, 정우식 경선

대한불교청년회가 신임 제27대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10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 공고를 발표하고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임 중앙회장을 선출할 것을 밝혔다.

이번 중앙회장 선출은 경선으로 치러진다. 현재 전준호 前 대불청 사무총장(기호 1번)과 정우식 현 회장(기호 2번)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전준호 前 사무총장은 후보 공약으로 >교육 관련 사회적기업 설립 >사이버평생교육기관 운영 통한 재원 확보 >외부 기관 모금 공모 사업 응모 >연꽃생활협

동조합 재 컨설팅 등 단체 자립도 방안을 내세웠다. 정우식 현 회장도 26대 집행부가 불청 운동의 위상강화를 이룬 만큼 대불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특히 심우장 일대를 '만해공원'으로 조성하고 각 지역 공공시설 수탁, CMS 후원자 1천명 달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한편,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조계종 신도증, 포교사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 불출협, 제9회 출판문화상 10월 10일까지 접수 마감

불교출판문화협회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1년간 국내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중 우수 도서를 선정해 불교출판문화상을 준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 9회 불교출판문화상에는 대상과 우수상 및 '올해의 불서 10종'을 선정해 각각 시상한다.

올해 시상은 대상의 경우 500만원, 우수상은 2종에 각 300만원을 저자와 출판사가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며, 올해의 불서 10종은 출판사 수상으로 예년과 같다.

신청은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를 작성해 신청도서 종별 5부를 출판문화협회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말이며 시상식은 12월 12일이다. (02)3672-7181~5

김주일 기자

## 동화사, 총림 지정 행보 본격화

### 오는 10월 22일, 관련 주제 심포지엄 개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가 총림 지정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화사는 오는 10월 22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울장정신과 종단정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팔공총림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

의 '바람직한 종교지도자 선출 방안'을 비롯해 조계종 교수아사리 자현 스님의 '울장 정신과 원융화합 종단 구현의 선결 과제',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울장에 근거한 종헌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고찰', 이자량 동국대 HK연구교수의 '울장의 근본 이념에 입각한 청구제정의 방향' 등이 발표된다.

신종일 기자

## 마주협 이주민 정책 토론회 개최

### 10월 12일 광주 시민문화회관에서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가 '한국사회의 이주현상과 불교적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주협은 아시아박람회공동체와 함께 10월 12일

광주 남구 시민문화회관 별관 소극장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주민 정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토론회에는 김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 등 전국 20개 단체 80명의 NGO활동가들이 참여해

주인 현황과 해결책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도제스님(마주협 상임대표)의 '한국사회의 제도포비아 현상'을 주제로 하는 기초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주성(광주의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외국인력 정책과 만족도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김남욱(조선대 법학과 교수)의 '다문화 한 부모가정에 대한 해법 모색' 등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남한산성 장경사가 각고의 뜻이 영그는 중추의 계절을 맞아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승군의 뜻을 기리는 수많은 행사가 있으나,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는 우리 역사 속의 한 권으로 남아있는 남한산성과 의승군을 역사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불사에 함께 하는 법연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앙망합니다.

## 2012. 10. 13.(土) \_ 10. 16.(火)

### 남한산성 · 장경사 일대

#### 의승군 추모 남한산성 걷기대회

남한산성, 역사숨결 따라 걷고 느끼기  
10월 13일 오전 8시/남한산성 남문주차장

#### 별밤 숲속 음악회

의승군 이야기를 엮은 작은 음악회  
10월 13일 오후 5시 30분/장경사

####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

10월 16일 오후 1시/장경사

#### 남한산성 의승군 학술세미나

11월 23일 오후 1시/남한산성 행궁

##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봉행위원회

464-816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2-1 Tel. 031-743-6547~8 Fax. 031-744-9197

- | 주 최 | 광주시, 경기도
- | 주 관 |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봉행위원회
-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